

A Study on the Buddhist Temple Formation and Buddhist Art of Ninh phúc tư Temple in Vietnam

Miryong Ji*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bstract

It is a fact that most academic discussions with regard to Vietnamese study are focused on economy and politics, and that a strong image as only one of the tourist attractions is perceived to the general public. Recently, however, humanistic discussions have been activated in the domains of literature, folktales, and history, and an interest in Vietnamese Buddhism is also increasing. Discussions on Vietnamese Buddhism mainly include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the sects of Buddhism, and Southern Buddhism that has linked to surrounding Southeast Asia regions.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 study on the religious culture or religious art in Vietnam has still a weak fundamental basis. This study examined the establishment of *Ninh Phuc Tu* Temple located in Tinh Bac Ninh of northern Vietnam and Buddhist art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The *Ninh Phuc Tu* Temple was rebuilt in the 17th century under the sponsorship from the Chúa Trịnh (鄭主) clan, and its former appearance is not clear. The monks of *Imjejong* (臨濟宗) sect, which was passed from China, Thiền Sư Chuyết Chuyết (拙拙和尚) and Thiền Sư Thuyết Thuyết (明行和尚) played a great role in the revival of *Ninh Phuc Tu* Temple. The formation of this temple exhibits a typical structure of *Seonjong* (禪宗) temples. In addition, *Sahasra-bhuja Sahasra-netra* (1656), a representative Buddhist art of the Nhà Hậu Lê dynasty, as well as Buddhist pagodas and portrait sculptures symbolizing *Ninh Phuc Tu* temple were created at the same time. The revival of *Ninh Phuc Tu* Temple was possible due to the neo-Buddhist movement (17C) that was boomed at the time and the sponsorship from the person in authority.

Key words : Ninh phúc tư Temple, Chúa Trịnh clan, Sahasra-bhuja Sahasra-netra, Nhà Hậu Lê dynasty, Thiền Sư Chuyết Chuyết (拙拙和尚), Thiền Sư Thuyết Thuyết (明行和尚)

* Corresponding to Miryong Ji (lecturer, Department of Art Theor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E-mail : ikemirei@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베트남 영복사(Ninh phúc tự)의 가람구성과 불교미술

지미령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요 약

베트남학에 대한 학술적 논의들은 주로 경제와 정치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 대중에게는 관광지의 이미지가 강하다. 근래 들어, 문학이나 설화, 역사 분야에서 인문학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베트남 불교에 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 불교에 대한 논의들은 불교 전래, 불교 종파, 주변의 동남아시아와 연계한 남방불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베트남 종교문화, 혹은 종교미술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연구기반이 미진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북부 박닌성에 위치한 영복사(Ninh phúc tự, 寧福寺)의 성립과 불교미술을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영복사는 17세기 쩐 주(Chúa Trịnh, 鄭主) 가문의 후원 아래 재건되었으며, 이전의 모습은 명확하지 않다. 영복사의 재흥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임제종 승려, 졸졸화상(拙拙和尚)과 명행화상(明行和尚)이 큰 역할을 했다. 영복사의 가람 구성은 전형적인 선종 사찰의 구조를 가지며, 후 레(後黎) 왕조의 대표적 불교미술인 천수관음상(1656)을 비롯해 영복사를 상징하는 불탑과 초상조각들이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다. 영복사의 재흥은 당시 일어난 신불교운동(17C) 및 실권자의 후원으로 인해 가능했다.

주제어 : 영복사(寧福寺), 쩐 주, 천수관음상, 후 레 왕조, 졸졸화상, 명행화상.

I. 서 론

베트남 불교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3세기에 전래했다고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불교의 전래는 중국을 통한 북방 루트와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인접국가를 통한 남방 루트로 들어왔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 다룰 영복사(寧福寺)는, 중국 한자문화권 영향 아래에서 불교가 유입된 베트남 북부지역에 해당한다. 베트남 북부지역은 중국의 남방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한(漢) 시기에 이미 중국의 남방불교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베트남 북부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중국불교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된다.

영복사는 후 레 왕조 후기에 재건된 사찰이다. 베트남 역사상, 레 왕조는 앞의 레 왕조(980-1010)와 뒤의 후 레 왕조(1428-1789) 두 개의 왕조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레 왕조를 칭할 때는 뒤에 세워진 후 레 왕조를 의미한다. 후 레 왕조는 다시 전기(1428-1527)와 후기(1533-1789)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 논하는 레 왕조는 뒤에 세워진 후 레 왕조이고, 특히 후기에 해당한다. 베트남은 전 시기에 걸쳐 유교보다 불교가 발달했지만, 후 레 왕조기는 예외였다. 리 왕조 시대에 유입된 유교가 후 레 왕조기에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더욱 공고하게 되었고, 반면 불교는 쇠퇴를 맞이했다. 불교의 재부흥은 후 레 왕조와 막씨(莫氏) 정권과의 분쟁이 끝난 후, 신불교운동이 일어나면서 불교가 세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었다. 영복사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재건을 맞이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 북부 박닌성(Tỉnh Bắc Ninh)에 위치한 영복사(Ninh phúc tư, 寧福寺, 이하 영복사)의 성립과 소장 불교미술을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II. 영복사(Ninh phúc tư) 성립과 가람 구성

1. 후 레 왕조 불교와 영복사 성립

베트남 북부지역의 불교 전래는 중국 한나라 이후 서역승들의 중국 남방불교 전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3세기에 활약한 범승 기억(耆域)이나 강거(康居)의 승려 강승회(康僧會) 등은 베트남에 북방 불교가 전래한 유력한 흔적으로 거론된다(정환국, 2014: 180-181). 이 시기부터 중국 당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은 중국의 문화적 영향권 아래에 있게 된다. 10세기 당이 쇠락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이완되기 시작했다. 리 왕조(Nhà Lý, 李朝)부터 쩐 왕조(Trần Triều, 陳朝)까지 이어지는 10-14세기는 베트남 불교의 황금기를 형성했다. 하지만, 후 레 왕조가 리 왕조기에 도입된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삼으면서 베트남 사회는 유교 사회로 전환된

다.¹⁾

후 레 왕조(Nhà Hậu Lê, 黎朝, 1428-1789)는 15세기 초, 레 태종(黎利, 재위 1428-33)이 중국 명나라와의 분쟁을 끝내고 세운 나라이다. 레 태종은 국호를 대월(大越)로 정하고, 탕롱[昇龍]을 수도로 개칭했다. 후 레 왕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교를 중심사상으로 제도를 확립한 나라이다. 초기에는 몽골 및 중국 명의 침략을 격퇴하면서 내셔널리즘이 높아져, 대월은 중국과는 다른 문명국임을 알리는 ‘남국(南國)’ 의식이 고취된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유학자 완천(阮薦)이 쓴 승리의 포고문, ‘나의 대월’은 베트남이 중국 명과는 풍속이 다른 문명국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石井公成, 2010: 381). 이 시기의 레 왕조는 독립 국가로서 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었지만, 당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불교는 이러한 의식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취했는지는 앞으로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레 태종은 유교 이념 아래에서 불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했다. 1429년, 전국의 승려들은 각 지역에서 승려시험을 치루는 칙령이 내려졌다. 레 성종(黎聖宗, 재위 1460-97)은 오경박사(五經博士)를 설치해 3년에 한 번씩 나누어서 과거를 실시했다. 이는 당시 베트남 불교가 도교와의 습합으로 인해 주술과 기도에 의지하는 폐단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를 잠재우고 유교적 통치 이념 아래 불교를 관리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유교이념의 도입은 베트남의 부계사회를 정립시켰고, 속명기(屬明期)부터 레 왕조에 걸쳐 도입된 주자학은 베트남 혼인문화에 유교가 침투되는 계기가 되었다(유인선, 2005: 41-52). 나아가 레 왕조의 불교 억제 정책은 관리와 승려의 교제를 금지하고, 사원 건립 금지 및 유사 출가자들(모습만 승려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등 강경한 정책을 펼쳤다.

16세기에 이르면, 후 레 왕조는 왕위 계승권을 두고 막씨(莫氏)와의 분쟁, 쩌씨(鄭氏)와 쩌씨[阮氏]와의 대립 등으로 혼란기에 빠졌다. 이 시기의 불교는 쇠락을 거듭했지만, 17세기에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게 된다. 17세기에 베트남의 여러 지역에서 신불교운동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북부에는 줄공파, 수월파, 백련종이 있고, 중남부에는 원소선파, 료관파 등이 있다. 이들 종파는 현재에도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연종(蓮宗, 白蓮宗)은 중국 송대 시기, 선종과 정토신앙의 융합을 주장한 린각(麟角, 1696-1733)의 주장을 계승하고, 죽림삼조(竹林三祖)의 교의와 결합한 종파이다. 탕롱성 교외에 위치한 바다사(Chùa Bà Đát)를 거점으로 베트남 북부 농촌에서 세를 넓혔다. 연종은 민간인들과의 토착화를 강조하고, 농민들의 불만과 욕구를 배경으로 투쟁을 일으켜 쩌 왕조(阮朝) 시기에 압박을 당했다.

료관파(了觀派)는 임제정종(臨濟正宗) 료관(了觀, ?-1743)을 개산조로 모신다. 료관파는 광남의 쩌씨 일족의 후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쩌씨 일족은 베트남 중부 후회를 거점으로 세를 키운 가

1) 유인선(2005)은 베트남의 통치 이념이 유교로 변화했어도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유교체제로 변화했을 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았다.

문으로, 강경한 승강제를 통해 승려임명장을 수여하는 불교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찐씨는 임제 정종을 보호하고 승강에는 임제정종의 승려만 인정했기 때문에 베트남 중부지역은 료관파가 세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원소선파(元紹禪派)는 1718년, 중국승려 원소(元紹, 原紹)가 베트남 남부의 참파왕국의 수도에 10층탑을 세우고, 임제종을 포교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원소는 이 지역에 둔전제(屯田制) 실시와 개척민들을 보내 생활하게 하는 등 참파문화를 중국불교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원소의 이러한 포교 뒤에는 찐씨 가문의 후원이 있었고, 이 흐름으로 인해 현재에도 베트남 남부 지역의 불교는 원소선파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베트남 북부에는 줄줄화상의 맥을 잇는 줄공파(拙公派)와 명행화상의 맥을 잇는 수월파(水月派)를 비롯해 서루주광(棲樓株宏), 감산덕청(憨山德淸) 등 명대 초기에 중국에서 건너온 승려들의 영향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石井公成, 2010: 384-385). 줄공파와 수월파는 영복사 가람 성립과 함께 기술하겠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베트남 후 레 왕조 시기의 불교지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영복사는 베트남 북부 박닌성에 있는 선종 사찰로, 수도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도온강의 남쪽 기슭에 위치한다. 영복사의 창건시기는 명확하지 않고, 현재 모습은 후 레 왕조 후기(17세기)에 재건된 것이다. 사찰의 비문에 의하면, 1640년부터 1691년까지 대규모의 재건공사가 있었다. 두 번째 중수공사는 1714년에 이루어졌고, 이후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다시 중수공사를 했다. 위의 기간은 대규모의 공사였고, 소규모의 개보수공사(1656, 1660, 1937, 1940, 1959, 1977) 역시 다수 진행되었다(伊東照司, 2005: 60).

영복사 재흥과 관련 있는 인물은 줄줄화상(拙拙和尚)과 명행화상(明行和尚), 그리고 찐 티 응 옥죽이 있다. 줄줄화상(Thiền Sư Chuyết Chuyết, 1590-1644)은 줄공파의 개산조로, 중국 복건성 출신의 임제종 승려이다. 중국에서 건너온 초기에는 캄보디아에서 16년간 불법을 전했다. 1630년경, 베트남으로 건너와 중부와 북부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면서 줄공파의 세를 넓혀가기 시작했다. 이후 제자 명행화상과 함께 하노이의 수도 탕롱성에 입성해 만복사(萬福寺)에서 설법을 시작했다. 젊은 시절에는 군주와 서민들에게 진력하기 위해 유교를 연구했고, 만년에는 영복사의 초대 주지(1634)가 되어 황제나 황족, 고관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했다. 주요 설법은 도교와 유교의 가르침을 이용해 불교의 오계와 유교의 오상이 같음을 강조했다. 저서로 『줄공어록(拙公語錄)』이 있으며, 입적 후 줄줄선사의 유체에 옷칠 처리를 해서 만든 육신상을 불적사(佛蹟寺)에 봉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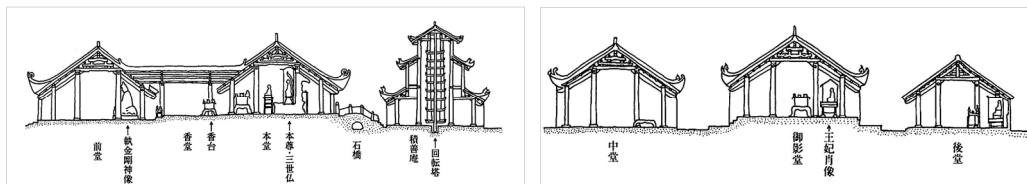
줄줄화상의 제자인 명행화상(Thiền Sư Thuyết Thuyết, 1595-1659) 역시 영복사를 거점으로 베트남 북부에 불교를 전파했다. 명행화상은 중국 강서성 출신으로 베트남에 건너와 줄줄화상과 만났다. 1633년, 줄줄화상과 함께 탕롱성 입성했고, 줄줄화상 입적 후 영복사 2대 주지(1644)가 되었다. 명행화상이 스승의 명에 따라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온 경전들은 불적사에

전당은 7×3칸으로 된 건물로 편액의 명기에는, ‘1642년 음력 오월 초여드렛날, 칙령에 의해 건립되었다(勅建 寧福禪寺 陽和八年壬午仲夏穀旦)’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전당의 앞, 양측 통로의 좌우에도 ‘칙건영복선사석비(勅建寧福禪寺石碑)’와 ‘영복선사삼보제사전비(寧福禪寺三寶祭祀田碑)’의 2기의 석비가 존재한다. 2기의 석비 모두 1647년에 영복사를 건립했다고 기록해 영복사가 왕의 명에 의해 건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영복사는 1739년과 1903년에 중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한 비문이 남아 있다. 1739년의 비문에는 ‘영복선사중수(寧福禪寺重修)’가, 1903년의 비문에는 ‘중수영복사비(重修寧福寺碑)’로 명기되어 있다(大山莊紀子 외, 2008: 690).

전당 내에는 2기의 집금강신상(약 4m)이 안치되어 있다. 제작 시기는 17세기 설과 19세기 설이 있지만, 모두 명확하지는 않다. 이들 금강역사상은 각각 하얀색과 붉은색으로 얼굴을 칠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하얀 얼굴의 금강역사상은 사람들에게 적선을 권하고 지켜주는 선신이고, 붉은 얼굴의 역사상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업을 소멸시키는 처벌신에 해당한다. 향당은 붓다에게 향을 공양하는 공간으로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건립되었다. 향당의 역할은 향을 올리는 것 이외에도 전당과 상당을 연결하는 회랑의 역할을 겸한다.

상당은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상당의 기단은 다른 전각들보다 1미터 정도 높게 해 자연스럽게 상하의 구도를 만들었다. 전각은 5×3칸의 가로가 긴 형태로 편액 명기에 따르면 1642년에 건립되었다. 17세기에 건립된 상전이 대부분 3칸인데 비해, 영복사는 5칸으로 전각 내부에 천수관음상 등 많은 불상을 안치하기 위해 건물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영복사 상당과 유사한 전각으로 타이빈성의 신평사 개조당(神光寺 開祖堂)을 들 수 있다(大山莊紀子 외, 2004: 197).

상당 내부에는 여러 불상들이 봉안되어 있다. 전각의 중앙에 삼세불(17세기)이 위치하고, 삼세불의 오른쪽 뒤편에 천수관음상을 안치시켰다. 삼세불의 양측에는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문수(우)와 보현보살(좌)이 있고, 보현보살의 뒤편에 고행석가상을 안치시켰다. 문수보살의 앞쪽에는 지장보살이 위치하고, 좌우 벽에는 16나한상이 안치되어 있다([그림 2]).



[그림 2] 영복사 전각(출전. 伊東照司: 61-62 그림 재인용)

[Figure 2] Schema of Ninh Phuc Tu Temple

상당의 뒤에 있는 석교를 건너면 적선암(Tich Thien hermitage, 積善庵)이 있다. 적선암은 10여 년에 걸쳐(1681년-1691) 완성한 3층 규모의 전각으로, 레 회종(Lê Hy Tông, 黎熙宗)의 재위기간에 해당한다. 전각 내에는 ‘구품연화회전탑(九品蓮華回轉塔)’을 안치했다. 회전탑은 주색으로 칠을 한 8각 9층 목조탑(9m)으로, 각 층마다 연화대좌 위에 불보살들을 부조로 새겨넣었다. 회전탑의 전후로 아미타불을 안치해 영복사가 선종사찰임에도 정토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줄줄화상이 영복사에 주석하면서 선종과 정토신앙의 조화를 강조한 설법을 한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영복사의 회전탑은 17세기경, 베트남에 밀교가 유포되면서 제작된 것으로 흥옌성(Tỉnh Hưng Yên, 興安省)의 엄광사(嚴光寺)에도 유사한 회전탑이 존재한다.

중당은 가중(茄中)으로 불리기도 하며, 전당과 함께 불보살을 안치하지 않았다. 중당의 역할은 왕실에서 참배를 왔을 때 사용한 한 객실로, 평상시에는 승려들의 집회장으로 사용되었다(伊東照司: 71). 어영당(御影堂)은 영복사 건립에 관여한 시주자들을 모신 일종의 사당의 역할을 한다. 영복사는 후 레 왕조 시기에 정치적 실권을 잡은 찐 주(Chúa Trịnh, 鄭主) 가문의 사실상 씨사(氏寺) 역할을 했던 만큼, 이곳에는 찐 주 가문과 관련된 여성들을 목조 주자 안에 모시고 있다. 구체적인 소개는 다음 장에서 할 예정이다.

조사당은 두 곳이 있다. 첫 번째 조사당은 동측 통로의 바깥쪽, 오층탑[報嚴塔]의 남쪽에 위치한다. 다른 하나는 후당(後堂)으로 후당 뒤에 오층탑[尊德塔]이 배치되어 있다. 전각 안에는 영복사 재건과 관련 있는 줄줄화상과 명행화상 두 분의 초상조각을 봉안했다. 이와 같은 조사당의 위치, 즉 상당의 뒤쪽에 후당(일명 개조당)을 짓는 ‘전불후신(前佛後神)’, 혹은 ‘전불후성(前佛後聖)’의 구조는 후 레 왕조 이후 시작된 베트남 불교사원의 특징이다(Hà Văn Tân, 1993: 53, 118). 영복사의 경우, 두 개의 조사당이 존재하는 데에는 두 명의 화상이 영복사 건립에 크게 관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영복사는 줄줄화상(1644년 입적)의 전각을 상당 뒤가 아닌 상당 옆에 위치시키고, 명행화상의 개조당이 뒤로 가는 전불후신의 구조를 취한다. 하반땅(Hà Văn Tân)의 지적을 근거로 판단하자면, 이러한 가람 구조는 줄줄화상의 입적(1644) 전후가 아닌, 명행화상의 입적(1659) 전후로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영복사 가람 구성과 전각 내부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III. 영복사의 불교미술

영복사의 대표적 불교미술을 꼽으라면 천수천안관음상(千手千眼觀音, 이하 천수관음상)을 들 수 있다. 영복사 천수관음상은 서방사(西方寺)의 16나한상과 패암사(貝庵寺)의 삼존불과 더불어 후 레 왕조 미술의 정점에 서 있는 작품이다. 불상은 대좌를 포함해 전체 높이가 3.7m에 이르며, 잣푸르트 나무를 사용해 제작된 채색목조불이다. 얼굴은 귀 옆에 2개의 얼굴을 포함해 3개

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 8개의 관음 두상을 3층으로 쌓아 올렸다. 최정상부에는 아미타불좌상을 안치시킨 11면관음보살의 모습을 취한다. 불상은 4개의 팔이 기본이 되며, 구체적으로 두 개의 팔은 합장을 하고 다른 두 개의 팔은 선정인을 하고 있다. 불상의 등 뒤에서 나온 36개의 팔과 함께 광배에는 952개의 작은 손을 갖추었고, 각 손바닥에는 눈을 새겨 넣었다.

불상이 안치된 연화좌는 용왕의 머리와 두 팔이 좌대를 떠받치고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 이 용왕은 『묘법연화경』에서 나오는 8대 용왕 중 한 명인 발난타용왕(跋難陀龍王)²⁾으로, 영복사본은 입을 벌려 보주를 물고 있는 모습이다([그림 3-4]).



[그림 3] 천수관음상(출처: 위키페디아)
[Figure 3] Sahasra-bhuja Sahasra-netra



[그림 4] 천수천안관음상의 연화좌(출처: 하노이 역사연구회)
[Figure 4] lotus seat

불상은 베트남의 불상으로는 드물게 대좌에 제작년대와 제작자에 대한 기록이 새겨져 있다. 명기는 ‘남동문수남장선생봉각(南東文壽男張先生奉刻)’으로 남동의 문수남으로 불리는 장선생이 조각해서 봉안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자료를 빌리자면, 천수관음상은 1647년, ‘張’이란 불사(佛師)가 당시 황제의 명에 따라 영복사에 와서 1656년 가을, 불상을 완성했다(伊東照司: 64-65). 기록에 의하면 천수관음상은 상당이 완성된 5년 후 조성되기 시작했다. 다만, 영복사 상당의 높이가 후 레 왕조기에 건립된 다른 사찰의 상당보다 높은 점에서, 천수관음상 제작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한다.

영복사 천수관음상은 발원자와 제작연유 등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장선생이 영복사에 온 1647년은 후 레 왕조의 진종(Lê Chân Tông, 黎眞宗)³⁾의 재위 기간(1643- 1649)에 해당

- 2) 발난타용왕은 난타용왕의 동생으로 형과 함께 마갈타국을 지키며 비를 내려 흉년이 들지 않게 한다. 또 사람으로 변신하여 부처의 설법을 듣는다고 전한다(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 3) 진종(1630-1649)은 후 레 왕조의 제18대 황제로 이름은 레 주이 호우(Lê Duy Hưu, 黎維祐), 혹은 레 주이 티(Lê Duy Thi, 黎維視)로 불린다.

한다. 하지만 2년 후 진종이 사망하고 신종(Lê Thần Tông, 黎神宗)⁴⁾의 재위 기간에 천수관음상이 완성된다. 신종의 경우, 1619년부터 1643년까지 황제로 재위하지만, 쩌 주(鄭主) 가문과의 권력 싸움에서 밀려 폐위된다. 이후 그의 아들인 진종이 즉위하지만, 19세의 나이에 사망하자 다시 황제로 복위해 1662년까지 재위한 인물이다.

후 레 왕조의 황제들은 명목상의 이름뿐 실제 권력은 쩌 주 가문과 쩌 주(阮主) 가문이 양분했다는 점은 앞에서 소개했다. 쩌 주 가문의 경우, 베트남 북부를 중심으로 정치적 실권을 잡고 지배해서 ‘베트남의 쇼군(將軍)제도’로 불리기도 한다(Chapuis, 1995: 119). 영복사 천수관음상이 조성되던 신종과 진종 시기, 쩌 주 가문의 실권자는 쩌 쟁(Trịnh Tráng, 鄭樞)으로 1623년부터 1657년까지 약 35년간 집정했다. 쩌 쟁은 전쟁을 통해 세를 키워나간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 쩌 쩡이 죽자 계승권을 두고 일족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쩌 쟁이 승리하여 실권을 잡게 되었다. 그는 막 왕조(Mạc Triều, 莫朝, 1527년~1677년)의 막긴코안((Mạc Kính Khoan 莫敬寬)과의 다툼을 승리로 이끌어 1624년 청도왕(Thanh Đô Vương, 淸都王)으로 진봉된 인물이기도 하다.

장선생이 천수관음상을 조성하기 위해 영복사로 온 1647년은, 쩌 쟁이 진종을 데리고 남하해 쩌-응우옌 분쟁(Trịnh-Nguyễn phân tranh, 鄭阮紛爭, 1627-1672)에 참전케 한 바로 전 해에 해당한다. 10여 년간 지속된 이 분쟁으로 인해 진종이 사망했고, 분쟁이 끝날 무렵 쩌 쟁 역시 병에 걸려 천수관음상이 완성된 이듬해(1657) 사망한다.

영복사 조성에는 쩌 쟁의 딸 쩌 티 응옥죽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앞에서 기술했다. 영복사 건립과 관련해 ‘칙건(勅建)’이 후 레 왕조의 왕이 아닌 쩌 주 가문의 명에 의한 것인 만큼, 천수관음상의 발원 역시 쩌 주 가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음신앙이 발달한 베트남⁵⁾에서 천수관음상 조성은 당연하지만, 이 불상의 조성엔 쩌 티 응옥죽뿐 아니라 쩌-응우옌 분쟁의 승리와 구복을 위해 실질적 후원을 한 쩌 쟁의 발원 역시 크게 좌우했을 것이다. 더해서 졸졸화상이 선종에 기반을 둔 정토설법을 했던 만큼, 쩌 쟁 자신도 병의 치료와 극락왕생을 위해 천수관음상 제작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불상을 제작한 ‘장선생’에 대한 사료가 아직은 미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은 불상이기도 하다. 다만, 영복사에 큰 영향력을 가진 졸졸화상과 명행화상이 중국출신인 만큼, 장선생 역시 중국에서 건너온 불사로 추정할 뿐이다. 영복사 천수관음상은, 1950-53년 사이에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인해 관음상의 머리 부분, 팔, 손가락 등이 훼손되었다. 이후 회반죽을 입히거나 석고로 덧칠하는 등 일부분을 수리했고, 1993년에 대대적인 복원작업을 진행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7세기 베트남 불교미술의 특징 중 하나로 초상조각 제작을 들 수 있다. 영복사에는 어영당

4) 신종(1608-1662)은 후 레 왕조의 제17, 19대 황제로, 이름은 레 주이 끼(Lê Duy Kỳ, 黎維祺)이다.

5) 베트남 관음신앙에 관한 연구는 최빛나라(2019), Lê Thị Ngọc Cẩm(2014) 등의 연구가 있다.

과 조사당에 초상조각을 봉안하고 있다. 어영당에는 쩌 티 응옥죽(Trịnh Thị Ngọc Trúc, 鄭氏玉竹) 왕후의 초상조각을 중앙에 안치하고, 좌우로 레 티 응옥옌(Lê Thị Ngọc Duyên, 黎氏玉緣)왕녀와 쩌 티 응옥코(Trịnh Thị Ngọc Cơ, 鄭氏玉姬) 왕녀를 안치했다. 반대편에는 쩌 티 응옥죽 왕후를 모셨던 여정사상(黎廷賜像)을 봉안했다. 이들 모두 높이 95~107cm 정도의 크기로 17세기 중반에 제작되었다. 여정사상을 제외한 3인의 여인상은 채색을 입힌 목조좌상으로 선정인 수인을 하고 있다.

쩌 티 응옥죽 왕후는 줄줄화상을 스승으로 삼아 출가를 했기 때문에, 가사를 착용하고 머리를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다. 신종의 딸인 레 티 응옥옌 왕녀 역시 출가했지만, 영복사 본에서는 속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레 티 응옥옌상과 쩌 티 응옥코상은 아미타불이 새겨진 보관을 쓰고, 금색의 의복을 착용하고 있다. 더해서 얼굴과 목, 손을 백색으로 칠해 고귀한 신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이 속인의 복식에 보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신이 된 人神像, 혹은 화신불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그림 5]).



[그림 5] 영복사 어영당 초상조각⁶⁾
[Figure 5] Portrait sculpture
of three women



[그림 6] 하노이국립박물관 소장
쩌 티 응옥죽상(출처. 위키피디아)
[Figure 6] Portrait Sculpture of Trịnh Thị Ngọc
Trúc. Sculpture owned by Hanoi National Museum

쩌 티 응옥죽의 다른 초상조각(17C)이 하노이 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상은 영복사본과 달리 부처가 새겨진 보관을 쓰고, 여원인과 시무외인 수인을 하고 있다. 의습은 속인의 복식이 아닌, 보살의 복식과 영락장식은 하고 있다. 하노이 박물관본은 속인의 등신상이 아닌, 화신불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6]).

쩌 티 응옥죽은 베트남에서 ‘관음의 화신’으로 불리는데, 여기에는 그녀의 생애와 관련이 있

6) 출처. <https://url.kr/1v76ix>

다. 그녀는 첫 남편인 여주(黎住)와의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후 여주가 대역죄로 참수당하게 되었다. 쩌 짜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홀로 남은 딸을 신종(神宗)에게 재혼을 시켰다. 쩌 티 응옥죽과 신종 모두 원치 않는 혼인이었고, 후 레 왕조의 대신들 역시 반대했으나 혼인은 진행되었다. 신종은 혼인 후 24년간 재위했지만, 쩌 짜과의 분쟁에서 폐위되어 출가해 승려가 되었다. 신종은 쩌 티 응옥죽을 비롯해 5명의 측실들과 함께 Pu Mat산에 들어가 정상에 밀사(蜜寺)를 건립했다. 이곳에서 신종과 6명의 부인들의 초상조각을 조성해 밀사에 안치했다. 이 사찰은 후대에 훼손되어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이곳에 봉납한 6기의 초상조각 중, 쩌 티 응옥죽의 초상만 현재 앞에서 기술한 하노이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나머지 초상조각은 소재지가 불분명하다(伊東照司: 72-74).

또 다른 초상조각은 동측 통로의 바깥쪽에 위치한 조사당에 있다. 전각 내부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명행화상, 왼쪽에 줄줄화상의 초상조각을 봉안했다. 두 조사상 모두 약 90센치 정도의 높이로 제작시기는 17세기와 19세기로 추정하는 등 명확하지 않다.

영복사에 있는 3개의 탑 중, 적선암의 회전탑은 앞에서 소개했다. 나머지는 조사당 배후와 후당의 배후에 위치한다. 먼저 조사당 배후의 보엄탑(報嚴塔)은 영복사의 상징적 구조물이다. 쩌 왕조(阮朝)의 제4대 황제인 사덕제(嗣德帝, 재위 1848-1883)가 영복사를 방문했을 때, ‘상당의 동쪽에 있는 탑이 붓처럼 보인다’라는 일화로 인해 ‘필탑사(筆塔寺)’라는 별칭이 생겼다. 보엄탑은 영복사의 개산조인 줄줄화상의 유체(遺體)를 봉납한 5층 석탑이다. 높이는 약 13미터이고, 1층의 석주들을 휘어 감는 용문양이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문에는 ‘복태오년(福泰五年, 1647)’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줄줄화상이 입적한 후 3년 뒤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엄탑에 안치된 줄줄화상의 시신은 미이라화 되어 현재는 박닌성의 만복사에 소장되어 있다.

후당의 배후에 위치한 존덕탑(尊德塔, 높이 10m) 역시 석조로 제작되었다. 석탑의 내부는 명행화상의 유골과 함께 초상조각이 안치되어 있다. 석탑의 측벽에는 17세기와 18세기에 새긴 석문이 존재한다. 석문의 내용은 명행화상의 행장과 레 티 응옥옌(黎氏玉緣) 왕녀의 이력과 절에 토지를 헌상한 내용이 적혀 있다. 레 티 응옥옌의 이력은 아마도 레 티 응옥옌이 명행화상을 스승으로 삼아 출가했기 때문에 존덕탑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보엄탑과 존덕탑은 줄줄화상과 명행화상의 입적 후 순차적으로 조성되었고, 유골과 유체를 모신 일종의 묘탑이라 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 북부 소재의 영복사의 성립과 소장 유물을 통해 후 레 왕조 시기의 베트남 북부의 불교지형을 살펴보았다. 베트남이 전 시기에 걸쳐 불교의 영향 아래에 있었지만,

논문에서 다룬 후 레 왕조기는 이전 왕조에서 도입한 유교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진 시기였다. 비록 유교의 기세가 특권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정성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유교와 대비해 불교는 쇠퇴일로였다. 이 시기에 베트남 중북부 지역 곳곳에서 불교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은 고무적인 일이다.

영복사 역시 17세기에 다시 부흥한 신불교운동에 힘입어 재건이 된 사찰이다. 영복사의 재흥은 중국에서 건너온 임제종 승려, 졸졸화상과 명행화상과 함께 찐 주 가문의 후원으로 가능했다. 영복사의 창건시기는 불분명하며, 창건 당시의 모습 역시 명확하지 않다. 영복사의 가람구성은 전형적인 선종 사찰의 구조를 가지며, 사찰의 성격은 선종과 정토종이 융합되어 있다. 이는 개산조인 졸졸화상의 설법으로 인한 것으로, 베트남에서 관음신앙이 성행한 것 또한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영복사에는 후 레 왕조의 대표적 불교미술인 천수관음상을 비롯해 영복사를 상징하는 불탑과 초상조각들이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다. 영복사의 재흥은 상류사회에서 향유하고 있던 유교를 불교로 바꾼 대체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영복사가 어디까지나 찐 주 가문의 사실적 씨사 역할을 담당했고, 영복사의 확장에는 후 레 왕조와 찐 주 가문의 여성들의 역할이 컸다.

본 논문에서는 영복사 소장 유물 및 여러 구성 요소들을 각론화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여기에는 영복사의 규모에 비해 관련 자료가 부족한 이유도 있으며, 각론화를 시키기 위한 재조사 역시 필요하다. 논문은 베트남 종교문화학에 대한 일보로써 부족한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References

- Akiko, Oyama., Sigeeda, Yutaka., Katagiri Masao. (2008). On the changes of the front hall, Tien Duong, in a Buddhist temple, Northern Vietnam.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625, 689-694.
- Akiko, Oyama., Sigeeda, Yutaka., Katagiri Masao. (2004). On the basic composition and its changes of Thuoi Dien of the Buddhist temple in Northern Vietnam.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576, 191-198.
- Choi, Bitnara. (2019).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Avalokitesvara Faith in Vietnam - Focusing on Derivation tale of the Avalokitesvara. *Vietnamese Studies*, 17(1), 229-259.
- Ha Van Tan (2008). *Buddhist Temples in Vietnam*. Hanoi: The Gioi Publishers.
- Ha Van Tan (1993). *Chùa Việt Nam*, nhà xuất bản Khoa học xã hội.
- 伊東照司 (2005). 베트남仏教美術入門. 東京: 雄山閣.

- (Translated in English) Ito syoji. (2005). *Introduction to Buddhist art in Vietnam*. Tokyo: Yuzankaku.
- 石井公成 (2010). 新アジア仏教史10 朝鮮半島 ベトナム 漢字文化圏への広がり. 東京: 佼成出版社.
- (Translated in English) Ishii, Kosei. (2010). *History of New Asian Buddhism*. Tokyo: koseishuppan.
- Jung, H. K. (2014). Characters of the Vietnamese Buddhist Narrative.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63, 175-216
- Oscar Chapuis (1995). *A History of Vietnam: From Hong Bang to Tu Duc*. Greenwood Press.
- Schweyer, Anne-Valérie and Phaisān(2011). *Piemmettawat. Ancient Vietnam: History, Art and Archaeology*. Bangkok: River ACC.
- Yu, I. S. (2005). The Foundation of Vietnam's Le Dynasty and Confucian Ideology: From Buddhism to Confucianism. *East Asia*, 48, 5-58.
- ハノイ歴史研究会. [Web log post]. Retrieved from <http://hanoirekish.web.fc2.com/butthapdera2.html>. Retrieved January 7, 2021.
- Asian Historical Architecture. [Web log post]. Retrieved from <https://url.kr/ulky5m>. Retrieved January 5, 2021.